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Peer Victimization

이 점 숙*
Lee, Jeom Sook
유 안 진**
Yoo, An Jin

ABSTRACT

This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individual risk variables (behavior problems) compounded by social risk variables (peer rejection) would place children at risk for victimization by peers. Subjects were 385 boys and girls in 3rd and 5th grade. Data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s. As predicted, behavior problems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were more strongly related to victimization when children were rejected by peers than when they were accepted. These results illustrate the principle that individual risk variables depend on social context.

I. 서론

최근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양원경·도현심, 1999; 이상균, 1998; Crick & Bigbee, 1998; Crick, Casas, & Ku, 1999; Hodges et al., 1999; Graham & Juvonen, 1998; Hodges et al., 1997)가 늘어 나면서 만성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존재와 상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또래 괴롭

힘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또래 괴롭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정의된다(Olweus, 1973). 부정적 행동이란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의에는 상대에게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괴롭힘과 상대를 관계에서 따돌려 심리적인 괴로움을 주는 따돌림도 포함된다. 다시말해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공격이나 그런 위협, 또는 욕을 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는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생일파티나 학급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친구가 없도록 만들어 고립시키는 것으로 피해를 주는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있을 수 있다(Crick & Bigbee, 1998).

두 유형으로 구분한 외국 연구(Crick & Bigbee, 1998; Crick, Casas, & Ku, 1999)에 의하면 직접적인 괴롭힘의 대상은 주로 남아이고, 관계에서의 따돌림의 주된 대상은 여아이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아와 여아의 또래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2가지 형태가 모두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괴롭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자주 경험하는 또래 괴롭힘 유형인 직접적인 괴롭힘(신체적·언어적 괴롭힘) 형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금까지 행해진 국내연구는 모두 직접적인 괴롭힘만을 또래 괴롭힘으로 보고 있어서 여아의 또래 괴롭힘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래 괴롭힘에 관한 국내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양원경·도현심, 1999; 이영미, 1989)는 주로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Perry와 동료들(1988)이 제작한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또래 괴롭힘에 관해서만 조사했다. 그러나 신체적인 괴롭힘도 문제가 되지만 표적 아동의 사회생활을 방해하여

고립시키는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준다. 특히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여아에게 중요한 사회적 목표인 친밀한 2인간의 유대 확립을 저해해 여러 가지 부적응을 낳고 있다. 아동기 이후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왕따'도 신체적 괴롭힘보다는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또래 괴롭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또래 괴롭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Olweus, 1978; Perry, Kusel, & Perry, 1988). 만성적인 또래 괴롭힘을 받는 아동은 더 우울하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학교를 싫어하고 회피하며, 또래에게 거부되고, 친구가 없는 등의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oulton & Underwood, 1992; Egan & Perry,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 1984).

그런데 이러한 부정 결과는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 그 심각성을 더 절감하게 한다. Egan과 Perry(1998)는 단기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유치원 아동의 부적응이 괴롭힘을 당했던 시기뿐 아니라 다음 학기에 괴롭힘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아주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다. Olweus(1978)에 의하면 아동기 때의 또래 괴롭힘은 성인기 적응을 예측해 주고, 사춘기 초기에 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10년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Olweus,

1992). 이와같은 이유에서 또래 괴롭힘과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결과 못지않게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특성에 관련된 기제와 조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래 괴롭힘의 선행인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동의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사회적인 위험요인을 나누어 살피고 있다. 개인적인 위험요인에는 피해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와 행동문제, 신체 허약, 사회적 기술부족이 포함되고 사회적인 위험요인에는 그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위치가 포함된다.

외국의 선행연구결과(Olweus, 1978; Patterson, Littman & Bricker, 1967; Perry et al., 1988; Perry, Williard, & Perry, 1990; Pierce, 1990; Schwarz, Dodge, & Coie, 1993)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아동이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불안과 위축을 많이 나타내며, 유머가 부족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으며, 비효과적인 설득전략을 사용하고, 굴복과 자신의 자원을 넘겨주는 것으로 공격자를 강화시킨다. 선행연구에서 이런 특성을 내면적인 문제(internalizing difficulties)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내면적인 문제를 표출하면 공격적 아동은 그들을 더 쉽고 만만한 상대로 보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에 더 취약해져 또다시 괴롭힘을 받는 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또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논쟁을 자주하는 등의 외현적 행동문제(externalizing problems)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Olweus, 1978; Perry et al., 1988; Perry, Perry, & Kennedy, 1992). 이런 외현적인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은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상

대를 화나게 하므로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Olweus, 1978)에서는 이런 아동을 도발적인 피해자(provocative victim)라고 규정했다.

이런 행동상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회피할 것으로 보여져 이들은 관계적인 따돌림도 많이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표출할 때에는 상대로부터 얻게되는 보상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을 더 많이 기대하고 부적 결과는 적게 기대할 때 공격을 하게 된다(Perry, Williard, & Perry, 1990).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은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보복을 잘 하지 못하므로 공격자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을 공격할 때 보복공격이라는 부적 결과를 적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런 아동에게 더 자주 공격을 가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자신의 곤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를 연구한 Graham과 Juvone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신체 허약에 귀인한 청소년이 더 창피하게 여기고 더 많이 위축되고 포기를 더 잘 한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풍부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지각과 자존감이 높고, 정서·인지적 대처를 잘 하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능력있게 지각한 아동들이 또래 괴롭힘을 적게 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회적 기술소유 정도가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동은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여 우정, 협동, 유머나 친사회적 기술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Egan & Perry, 1998; 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88).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 소유 정도가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들은 사회맥락적 요소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괴롭힘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동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아동의 공격을 허용하거나 막지 못하는 또래 집단내의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내면적인 문제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동, 또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그를 지지해주거나 공격자에 대항하여 보호해 줄 친구가 없을 때, 또래들에게 거부당할 때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선행연구(Hodges, Malone, & Perry, 1997)에서는 사회적인 위험요소라고 정의했다.

또래 수용성과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또래 집단에서 수용성이 낮은 아동들, 즉 또래들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 학령기 동안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88).

이와같이 또래의 수용과 또래의 거부가 또래 괴롭힘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수용과 또래의 거부가 또래 괴롭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또래 괴롭힘의 결과로서 피해 아동은 학업의 실패나, 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저하되는 등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결부되어 외로움의 증가, 또래들 사이에서의 인기상실을 가져온다. 그런데 또래들사이에서의 고립과 인기상실은 또래 괴롭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며(Olweus, 1993), 이는 결국 또래 괴롭힘이 반

복되어 만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괴롭힘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기에 괴롭힘이 만성화되기 이전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괴롭힘에 관한 국내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괴롭힘의 결과에 관한 연구만 있을 뿐 괴롭힘을 나타내는 아동의 내·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조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관해 또래 괴롭힘의 하위 유형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도 또래 괴롭힘의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와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를 괴롭힘의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인 변인과 사회적인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또래 괴롭힘의 두 유형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관련되는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성과 연령에 따라 또래 괴롭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3학년과 5학년에 재학중인 385명의 아동이다. 학급단위로 조사해야 그 학급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학년과 5학년에서 무작위로 5개 반을 선정해서 조사했다. 아동중기인 이 시기동안 공격적 성향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안정되기 시작해(Epstein, 1990; Khatri, Kupersmidt, & Patterson, 1994; Olweus, 1978),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공격 성향으로 성인기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다(Perry et al., 1988). 따라서 공격을 당하는 또래괴롭힘 성향도 이 시기에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Schwartz, Dodge & Coie, 1993). 그러므로 또래 괴롭힘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마련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인지·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 질문지에 응답이 가능한 3학년 아동과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조사도구

1) 또래 괴롭힘 척도

본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괴롭힘 척도는 직접적인 괴롭힘 척도와 관계에서의 따돌림 척도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직접적인 괴롭힘의 척도로는 또래 괴롭힘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Perry와 그의 동료들이 Wiggins와 Winder(1961)의 Peer Nomination Inventory

(PNI)를 수정하여 개발한 또래 괴롭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모두 7개의 문항으로 아동은 학급명단이 쓰여진 종이에 각 문항에 해당되는 아동의 이름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괴롭힌다'와 같이 서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비조사결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은 이런 질문이 괴롭히는 아동을 묻는 것인지,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묻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진술 형태를 바꾸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누구인가'와 같이 의문문의 형태로 구성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4$ 로 나타났다.

따돌림 척도는 Crick과 Grotpeter(1995)의 Social Experiace Questionnaire-Peer report (SEQ-P)와 Crick과 Grotpeter(1996)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alpha=.71$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교사보다는 또래가 괴롭힘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평가는 괴롭힘 현상을 부인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낮은 비율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보고가 개별 아동의 편견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또래보고를 통해 조사했다.

2)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 척도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적인 요인 척도는 Hodge와 동료들(1997)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크게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신체적 특성은 신체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힘세

〈표 1〉 또래 괴롭힘 척도

1.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아이는 누구인가?
2.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은 친구는 누구인가?
3.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자주 듣는 아동은 누구인가?
4. 아이들은 누구에게 심술궂게 행동하는가?
5.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는 아동은 누구인가?
6. 다른 아이들은 누구를 때리거나 미는가?
7. 다른 아이들은 주로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

〈표 2〉 관계에서의 따돌림 척도

1. 우리 반 친구들은 주로 누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 하는가?
2.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놀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는?
3.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는?
4. 우리 반 친구들에게 주로 꼴탕을 먹는 친구는?
5.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친구는?
6. 우리 반 친구들이 말을 잘 걸지 않는 친구는?
7. 조를 짤 때 꺼주지 않는 친구는?

고 튼튼한 아동, 팔씨름을 잘 할 것 같은 아동, 운동을 잘 하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내면적인 문제(internalizing difficulties)는 아기처럼 행동하는 아동, 교사의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동, 불평을 많이 하는 아동, 어울리지 못하고 쳐다만 보는 아동, 말이 없는 아동, 겁이 많은 아동, 슬프고 불행해 보이는 아동 등을 묻는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외현적인 행동 문제(externalizing problem)는 못된 아동, 다른 친구를 자주 놀리는 아동, 다른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아동, 거짓말을 잘 하는 아동,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아동, 귀찮게 구는 아동,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아동을 묻는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은 양보를 잘 하는 아동, 항상 친절한 아동을 묻는 2 문항 등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척도의 신뢰도는 신체적 특성은 $\alpha=.85$, 내면적인 문제는 $\alpha=.81$, 행

동의 문제는 $\alpha=.78$, 사회적 기술소유는 $\alpha=.87$ 로 나타났다.

3) 또래 수용-거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사용한 긍정적·부정적 또래 지명 절차를 사용했다. 즉, 대상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짜증으로 앓고 싶은 친구'를 3명씩 적게 하였다. 또한 각 상황에서 함께하기 싫은 친구도 3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각 상황에 따라 거명되는 아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문항으로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를 조사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는 것보다 원자료의 손상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각 문항에서 지명된 횟수를 점수화했다. 즉,

긍정적 지명 횟수와 부정적 지명횟수가 각각 그 아동의 또래 수용점수와 또래 거부점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척도는 박사수료 이상의 아동학 전공자 2인과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여 번안 수정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아동들의 문항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 38명과 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1999년 6월 1일부터 약 1주일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급에 들어가서 아동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

문지에 답하는 요령을 설명했다. 3학년 아동들은 예비조사결과 문장 이해력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를 함께 읽으면서 답을 쓰도록 했다. 총42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398부를 회수하고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385부를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특성이 직접적인 괴롭힘에 미친 영향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연령에 따라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연령에 따라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모두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인 조사대상 모두가 동일한 아동중기 시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연령에 따라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연구가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괴롭힘이 줄어들고 간접적인 괴롭힘인 따돌림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입증되지 못했다. 그런데 직접적

인 괴롭힘의 문항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직접적인 괴롭힘에서도 신체적인 공격은 5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적게 보고했지만, 언어적 공격은 오히려 더 많이 보고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이 다른 발달적 양상을 나타내므로 둘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성별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직접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의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나타난바와 같이 분석결과 직접적인 괴롭힘은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나($t=3.94$, $p<.05$),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직접적인 괴롭힘은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나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남아와 여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여아의 또래 괴롭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적인 괴롭힘 뿐만아니라 관계

에서의 따돌림도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또래 괴롭힘 유형의 성차는 성별분리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남녀 아동의 또래 환경이 다를 수 시사해 준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직접 괴롭힘과 따돌림

아동의 성별	남아(n=197)	여아(n=188)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직접 괴롭힘	10.61(16.11)	9.37(12.05)	3.94*
관계에서 따돌림	10.40(17.60)	9.68(12.58)	2.78

* $p < .05$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가 신체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높고, 여아가 관계적 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Crick & Bigbee, 1998; Crick et al., 1999)결과를 지지해 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 중에서 남아에게서 많이 보이는 직접적인 괴롭힘에 관해서만 연구했기 때문에 괴롭힘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괴롭힘을 구분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괴롭힘에서는 성차가 나타났지만, 관계에서 따돌리는 것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또래의 직접적인 괴롭힘만으로는 또래 괴롭힘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격성 표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공격이나 공격 위협으로 공격성을 표출하지만 여아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타나 우정이나 친구관계를 저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그러므로 공격을 당하는 괴롭힘의 형태도 성별에 따

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공격성의 표출방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때, 또래 괴롭힘에서의 성차도 이런 면에서 해석해야 한다.

3. 직접적인 괴롭힘에 대한 아동특성 변인

직접적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직접적인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의 행동문제 소유정도($\beta = 5.53, p < .0001$), 내면적인 문제 소유($\beta = 2.60, p < .0001$), 또래들의 거부($\beta = 1.70,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다른 아동에게 공격을 가하는 등의 행동문제를 많이 소유할수록, 걱정이나 불안 등의 내면적인 문제를 많이 소유할수록,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많이 당할수록 직접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이들 세 변인은 직접적인 괴롭힘을 48%정도 설명해주는 능력이

〈표 4〉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예측 변인	R	R ²	F	B	β
행동문제	.59	.34	201.11****	5.53	.59
내면적인 문제	.68	.47	87.31****	2.60	.48
또래의 거부	.69	.48	10.26***	1.70	.39

*p<.05 **p<.01 ***p<.001 ****p<.0001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또래의 수용은 유의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래의 수용과 거부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좋아하는 아동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고 정상분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반해, 싫어하는 아동은 각 학급에서 4-5명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또래의 수용성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해서 이 번에는 친구의 수를 확인해 보았다. 친구의 수는 좋아하는 친구로 상호지명된 경우를 점수화했다. 그 결과 친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아동이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을 적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인 요소에서 또래 집단내에서 수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동을 또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Hartup(1993)이 우정의 중요한 발달적 기능을 역설한 이후 많은 연구자(Bukowski, Sippola, &

Bovin, 1995; Hodges, Malone, & Perry, 1997; Rizzo, 1989)들은 이제껏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정의 보호적 측면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한 우정의 질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지지적인 친구의 수라는 우정의 양적인 측면과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롭힘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우정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면 보다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대한 아동특성 변인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또래의 거부($\beta=.69, p<.0001$), 아동의 내면적 문제($\beta=.43, p<.0001$), 아동의 행동문제($\beta=.30, p<.0001$)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들로부터 더 많이 거부되는 아동일수록, 아동이 걱정이

〈표 5〉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예측 변인	R	R ²	F	B	β
또래의 거부	.69	.48	354.47****	.86	.69
내면적인 문제	.80	.63	157.21****	.80	.43
행동의 문제	.83	.69	67.01****	.43	.30

*p<.05 **p<.01 ***p<.001 ****p<.0001

나 불안 등의 내면적인 문제를 많이 소유할수록, 또한 아동이 파괴적이고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문제를 많이 소유할수록 관계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했다. 이들 세 변인은 관계에서의 따돌림의 68.7%를 설명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아동이 사회적 기술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또래 괴롭힘을 적게 당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또래 괴롭힘에 유의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아동들이 내면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사회적 기술을 잘 사용하는 아동간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보 및 돕는 행동과 아동이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보이는 것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2개의 문항으로 사회적 기술 소유를 판별하기에는 부족했고, 특히 양보를 잘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발달해서 양보를

잘 하는 아동과 위축되어 있어서 소극적으로 자원 양도 및 양보를 하는 아동이 함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와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동은 괴롭힘을 적게 당하고 허약한 아동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괴롭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거는 등 상대를 화나게 해서 상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신체활동 수준이 높기때문에 신체적 건강과 괴롭힘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행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7)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 중 일부는 동시에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기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비공격적인 피해자와 도발적인 피해자를 구분하여 기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이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밝히며, 이러한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3학년 아동과 5학년 아동에게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공격을 통한 직접적인 괴롭힘이 감소하고 대신 관계에서의 따돌림과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괴롭힘

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괴롭힘의 척도에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다거나 조롱하는 것 등의 언어적 공격이 신체적 공격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Perry et al., 1988)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공격은 감소하고 언어적 공격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괴롭힘을 세분하여 신체적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적인 괴롭힘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즉, 직접적인 괴롭힘은 남아가 더 많이 당하지만 관계에서의 따돌림은 남아와 여아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몇몇 연구들은 또래 괴롭힘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또래 괴롭힘은 남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또래 괴롭힘의 성차를 주장하는 연구는 대부분 또래 괴롭힘의 척도에 직접적인 괴롭힘만을 포함시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또래 괴롭힘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끼고 상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아동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up, 1992)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괴롭힘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관한 국내연구는 없었다. 또래 괴롭힘을 조사한 3편의 국내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양원경·도현심, 1999; 이영미, 1989)에서 사용한 Perry와 동료들(1988)의 PNI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문항을 살펴보면 놀림을 당하거나 다른 아동이 괴롭히거나 다른 아동이 때려서 감정이 상한 친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속에 여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따돌림에 관한 문항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척도로 또래 괴롭힘을 조사했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에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폭 넓은 또래 괴롭힘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또래 괴롭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해석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제로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더 또래 괴롭힘을 당했는데, 남녀의 또래 괴롭힘 차이가 적게 나타났

을 수 있다. 이것은 여아의 경우 또래 괴롭힘에 대한 낮은 역치, 준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아의 경우는 또래들과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신체 공격은 친구들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작은 신체 공격도 또래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 괴롭힘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또래 괴롭힘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행동문제, 내면의 문제, 또래의 거부, 학년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인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동은 행동의 문제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내면적인 문제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더 많이 당했다.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또래의 거부, 행동의 문제, 내면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즉, 또래들로부터 더 많이 거부되는 아동일수록, 행동의 문제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내면적인 문제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따돌림을 더 많이 당했다.

직접적인 괴롭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행동의 문제이고,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또래의 거부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으로 구분한 본 연구의 분석은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변인은 사회적인 변인에 의해 중재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또래의 거부가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많

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수용성과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 또래집단에서의 수용성이 낮은 아동, 즉,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Hodges et al., 1997; Perry et al., 1988; 양원경·도현심, 1999)을 지지한다. 또래 집단내에서 수용성이 낮은 아동이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편견이 발달하여 또래들은 이러한 거부되는 아동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이나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여러 가지 발달상의 문제를 겪게 된다. 지금까지의 또래집단에서 거부되는 아동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Asher et al., 1984; Cassidy & Asher, 1992; Parker & Asher, 1987)이 지지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로써 개인적인 위험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Hodges et al., 1997; Rutter & Gamezy, 1983)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의 수용은 또래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수용을 측정할 문항이 좋아하는 친구를 지명하는 것이었는데, 응답결과 거부되는 아동은 특정 아동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선호되는 아동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또래의 수용은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아동이나 짝하고 싶은 아동을 묻는 문항에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학급에서 소외된 친구를 초대하거나 그 친구와 짝하고 싶다는 응답을

많이 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척도나 측정방법을 정교하게 해서 보다 정확한 또래의 수용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상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피해 아동의 특성이 규정되었지만 이 결과가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 아동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들의 행동의 문제나 내면적인 문제를 적절히 보완해주어 괴롭힘의 중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행동의 문제와 내면적인 문제가 괴롭힘에서 동일한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내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반해, 행동의 문제 소유 정도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상대를 화나게 만들어서 공격을 받는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비공격적인 피해자(nonaggressive victim)이다. 상대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해 상대를 화나게 해서 공격을 되받는 도발적 피해자들의 경우는 행동적인 문제를 아주 높게 소유하지만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들은 행동적인 문제 소유 정도가 낮다.

연구자들은 또래 괴롭힘의 관련인자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행동적 선행인자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지 못해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게하는 혹은 선행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만성적인 또래 괴롭힘에 선행하는 행동패턴이 밝혀지면 만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 등의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직접적인 괴롭힘만을 살핀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관계에서의 따돌림을 나누어 살펴 보아 또래 괴롭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선행요인에 관한 국내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의 선행요인을 보다 세밀히 규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래 괴롭힘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아동중기를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교사들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개별

히 주의를 기울여 이들이 만성적으로 또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조사하는 횡단적인 연구에만 머물렀다.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선행인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2문항으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소유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웠고, 대상 아동들이 내면적인 문제와 사회적 기술 소유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척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또래 지명만을 조사했는데 또래 괴롭힘에서는 객관적인 타인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괴롭힘에 관한 측정을 다원화할 것이 요망된다.

참고 문헌

- 김준호(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 개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 이상균(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미(1989).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와 사회측정적 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유안진(1995).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3), 127-147.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1997). 폭력은 싫어요.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156-1161.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_____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367-380.
- Crick, N. R., & Casas, Juan E., Ku, Hyon-chin (1999). Relational and physical form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Development Psychology*, 35(2), 376-385.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Epstein, A. M. (1990). Stability of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 In B. Laursen (Eds.),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pp. 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5). Behavioral and soci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Who is at risk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Hodges,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 Psychology*, 33, 1032-1039.
- Hodges, E. V., Ernest V. E., Boivin, Michel Vitaro, Frank Bukowski, William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Graham & Juvonen, (1998). Self-Blame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 Psychology*, 34, 294-314.
- Grotp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Khatri, P.,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Pittsburgh, PA.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d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Olweus, D.(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J.

- F. Cole & D. D. Jense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_____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s in school*. NY: Wiley.
- _____ (1992). Peer victimization: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_____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G. R., Littman, R. A., & Bricker, W. (1967). Assertive behavior in children: A step toward a theory of aggress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 (5, Serial No. 113).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 807-811.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c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dolescent development* (pp. 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ce, S. (1990).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victimiz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 Rizzo, T. A. (1989). *Friendship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school*. Norwood, NJ: Ablex.
- Rutter, M., & Gamezy, N. (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775-911). New York: Wiley.
- Schwar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